

고졸 루키 '홍건희' 스타 예감



시범경기 첫 선발... 두산전 4이닝 3피안타 호투
 두둑한 배짱에 호랑이팬들 벌써부터 '건희얌이'

KIA 팬들이 '건희얌이'에 빠졌다. KIA 타이거즈의 고졸 루키 홍건희(19)가 24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로 나서 4이닝 3피안타 2탈삼진 1실점의 우수한 성적표를 제출했다. 팀은 타선 집중력 부재로 1-2로 패했다. 앞서 넥센과 SK와의 시범경기에 중간계투로 등판해 거침없는 투구로 눈길을 끌었던 홍건희는 선발출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며 KIA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홍건희는 이날 국가대표 톱타자 이종욱과

거포 김현수·김동주가 포진한 두산 타선을 상대로 55개의 공을 던지며 기량 점검을 받았다. 작구 최고구속은 146km를 기록했고,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결합해 2개의 삼진을 속아냈다. 1회 시작과 함께 위기를 맞았지만 두둑한 배짱으로 마운드를 지키며 겁없는 신인 탄생을 알렸다. 홍건희는 1회초 첫 타자 이종욱을 좌전안타로 출루시킨 뒤 폭투까지 기록하면서 무사 3루의 위기에 몰렸다. 고영민을 3루수 파울 플라이로 돌려세웠지만 김현수의 1루수

앞 땅볼때 이종욱이 홈을 밟으면서 0-1. 곧이어 4번타자 김동주에게 볼넷을 내쳤지만 윤석민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무사 3루를 1점으로 막았다. 5회에는 고영민과 김현수에게 연속안타를 맞기는 했지만 2-4회 탈삼진 하나씩을 결합하며 삼자범퇴를 장식했다. 홍건희는 "선발로 나서다보니 더 긴장되고 포크 제구가 좋지 않았지만 큰 실수 없이 경기를 풀어나 것에 만족한다"고 첫 선발 등판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두둑한 배짱에 선장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홍건희의 투구가 더욱 돋보인다. 홍건희는 이날 12개의 포크볼을 구사했다. 아직 타자들을 압도할 만한 각이 부족하지만 지난 스프링캠프에서 익히기 시작한 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합격점을 줄 만하다. 아직 실전에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커브 장착도 진행중이라 조만간 다양한 레퍼토리 구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어깨 수술로 재활을 하였던 내야수 안치홍이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안치홍은 8회말 홍재호의 대타로 출전해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뒤 9회초 2루 수비에까지 나섰다. 빠른 재활로 팀에 조기 복귀 했지만 실책성 플레이를 기록하는 등 정상 컨디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고졸 루키 홍건희가 24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호투를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올 프로야구 열기 심상찮다

KIA 내달 2일 홈 개막전 티켓 예매 50분만에 매진

KIA-두산 시범경기 관중 몰려

프로야구 열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은 프로야구는 올 시즌 사상 첫 600만 관중 돌파를 노리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28일부터 4월3일까지를 '야구주간'으로 선포해 야구부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본 무대가 시작하기도 전에 시범경기에 구름관중이 몰리고 개막전 예매 티켓 전쟁이 벌어지는 등 야구 열기가 뜨겁다. 24일 KIA와 두산의 시범경기가 열린 무등야구장에는 1200여명의 관중이 몰려 들었다. 평일 경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관중이 찾아 응원을 보내며 모처럼 무등야구장이 들쭉였다. 관중 몰이는 시범경기 개막전에서부터 조짐을 보였다. 시범경기 메인 개막전이었던 KIA와

넥센의 제주도 경기에는 이틀동안 1만 3000여명이 다녀갔다. 프로야구 연구구장이 없는 제주도발 인기는 부산·대구·대전 구장에서도 이어져 시범경기 개막 2연전에만 총 7만여 관중이 찾았다. 4월2일 프로야구 개막전을 놓고는 티켓 전쟁이 벌어졌다. 24일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 KIA의 삼성과의 개막전 티켓 예매가 50분 만에 마감됐다. 이날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분량은 전체 1만2500석중 현장 판매분을 제외한 9000석. 평일 오전 11시에 예매가 시작됐지만 5분만에 지정석 판매 분량이 동이 났고 제한 시간도 안돼 9000석이 모두 매진됐다. 앞서 진행된 롯데와 삼성의 사진전, 두산과 LG의 잠실전 티켓 예매도 1시간 만에 마감됐다.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 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방망이쇼

3안타 2타점 2득점 맹활약
 시범경기 고감도 타격 자랑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중심타자 추신수가 시범경기에서 안타 3개를 몰아치며 개막을 앞두고 타격 감각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의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볼넷 1개를 끌라내고 4타수 3안타를 쳤다. 타점 2개, 득점 2개를 올리며 맹활약한 추신수는 시범경기 타율도 0.311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회부터 선취 타점을 올리며 공격의 물꼬를 텄다. 0-0으로 맞선 1사 3루

에서 캔자스시티 선발 내이션 애드록의 초구를 받아쳐 중견수 쪽으로 날아가는 1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다. 투수 보코로 3루까지 진출한 추신수는 올랜도 카브레라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3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애드록을 상대로 중전 안타를 빼앗은 뒤 득점도 추가했다. 추신수는 팀이 4-7에서 6-7까지 따라붙은 8회에도 동점 적시타를 뽑아내며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클리블랜드는 9회말 코드 웰프스의 끝내기 3루타에 힘입어 8-7로 이겼다. /연합뉴스

佛 “내년 피겨선수권 개최지 日에 양보”

2012년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프랑스가 대지진으로 올해 대회를 열지 못하게 된 일본에 개최권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빙상경기 협회는 “큰 재해를 당한 일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회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며 “우리 대신 일본이 2012년 대회

를 개최하게 해달라고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FFIGS는 2012년 대회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시기에 개최 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 대회는 애초 니스나 몽펠리에에서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돼 있다. /연합뉴스

피겨여왕, 피겨전설과의 만남

김연아, 고르디바와 함께 아이스쇼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문에서 두 차례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은반의 백조' 예카테리나 고르디바(러시아·사진)가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의 올해 첫 아이스쇼에 출연한다. 올댓스포츠는 5월 6~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특설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지는 'KCC 스퀘어 올댓스케이팅 스프링 2011' 아이스쇼의 출연진을 24일 발표했다. 출연진에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금

메달리스트 일리야 콜릭(러시아), 2006년 토리노 대회 은메달리스트 스테판 람비네(스위스),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브리앙 주베르(프랑스) 등 예전에 김연아와 여러 차례 공연했던 '미남 스타'들이 포함됐다. 또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과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페어스케이팅 금메달을 따냈던 스타 예카테리나 고르디바가 눈에 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가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 스릴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주소(D) 대산프리모 | 검색

NAVER | 50m

대산프리모가발

SCREEN GOLF

두암골프존

연중무휴 가격인하!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골프존 Real 18홀 17,000원 (추가부담 없음)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시설 5개홀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자식 스윙플레이트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윈스턴석(와이드 화면) 구비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두암골프존 |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 234-9999